

한해를 보내며

Looking Back This Year

尹相國 / 관건축사사무소
by Yoon Sang - Kook

암울한 오늘에서 희망있는 내일의 좋은 건축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축주·시공자·행정관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뛰어야 할 것이다. 저 아름다운 들녘풍경이 어둡고 슬펐던 한해의 마지막 길목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여유를 갖게 했으면 한다. 또 밝은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있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한다.

“사는게 시지프스의 신화보다 더 재미없어”라고 아침부터 짜증내는 아내의 모습이 머리를 스쳐간다. 정신없이 계획설계에 몰두하던 일손을 멈추고 창너머 도봉산 가을풍경에 눈을 떠 본다.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아름다움인가! 어느 시인도 화가도 한절의 시구 한폭에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각오와 다짐을 했던 것이 얼마전 같은데 벌써 열한장짜 달력을 물끄러미 쳐다보니 마음 착잡하기만 하다. 항상 일상생활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그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자”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일들에 얼마나 충실했던가? 후회와 번민 또 새로운 각오로 항상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보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아침 출근 시간부터 “감리현장에 아무런 문제점도 없었으면…”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문제 진정문제로 전화가 없었으면…

어제끝낸 계획설계가 간촉주 마음에 들어 계약체결이 꼭 되었으면…

이달 사무실 경비문제, 급료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오늘 하루도 별탈 없는 조용한 하루가 되었으면…”라고 면면하는 녀두리로 하루가 시작된다.

왜 이 부질없는 녀두리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해야 하나,

건축사(건축가)들은 이 사회에 좋은 건축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창작 활동에 전념해야할 때에 왜 이런 문제점에서 헤어날 수 없을까.

현 사회 탓일까? 자신의 자질 문제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얼마나 힘든 한해였던가.

대형사건,

충격적인 사건,

그런 사건들이 터질때마다 우리들은 가슴조려야 했다.

우리의 가슴속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을 것이다.

이 멍든 가슴속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축주의 싸고 빨리빨리의 잘못된 이해, 정확성 없고 대충에 젖어있는 시공자, 일관성 없는 건축행정 등을 치유해야되지 않는가.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시골동네의 흙벽돌집이 생각난다.

장정 몇몇이 모여 진흙과 벚짚을 물에 개어 만든 진흙 반죽을 나무틀에 넣고 발로 다져서 흙벽돌 한장 한장을 만들던 그 모습.

그 흙벽돌로 지은집이 지금도 시골동네에 있다. 10도 정도 기울어져 몇군데 벚짚목이 기대어 있지만 30년이 넘는 그 집을 사용하는데 불편과 불안감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지금처럼 공인된 제품 이상인 것을 재료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구조계산에 의해 설계된 것도 아니고 집을 지은 그들은 구조가 어떻게 시공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오직 그들은 장인정신에 바탕을 두고 흙벽돌 한장한장을 정성들여 만들고 쌓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우리들은 이 장인정신과 정성이 결여된 것 같다.

건축주로부터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규모가 크고 작든간에 정성을 다했다면 오늘날같이 어둡고 씩씩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라도 건물 하나하나를 설계, 감리할 때 좋은 작품을 만들려는 정성과 노력을 다할 때 의뢰인들(건축주)로부터 충분한 대가(설계비, 감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럴때 주위로부터 존경받는 건축사가 될것이다.

우리가 설계한 작품들이 만약 십수년도 못가 사회적 요인(재개발사업, 도로확장)등에 의해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시대의 인기요인이나 사용자의 여러가지 불만 등에 의해 현재 몇억 몇십억하는 건축물이 철거가 된다면 과소비중에 과소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몇십, 몇백, 몇천만원을 쓰면 과소비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건축물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거되고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는 건축사, 건축주, 시공자, 관련 공무원 그리고 사회전체가 본인들이 맡은 분야에서 정성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느날 설계일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병실에서 실낱같은 생명을 부둥켜안기 위해서 애쓰는 어느 노인을 보고 과연 산다는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마음이 저러왔다.

언제 다할지 모르는 생명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인,

정신없이 이러저리 뛰는 진료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조이는 주위의 가족들,

이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오직 노인의 실낱같은 생명일 것이다.

이 생명과 같이 암울한 오늘에서 희망있는 내일의 좋은 건축문화를 이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건축주·시공자·행정관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뛰어야 할 것이다.

저 아름다운 들녘풍경이 어둡고 슬펐던 한해의 마지막 길목에 서있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며 여유를 갖게 했으면 한다. 또 밝은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있는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한다.